

수박재배 하우스에서 목화바둑명나방의 월동상황

최동철, 노재중, 유병도

고창수박시험장

목화바둑명나방은 유충이 박과 작물, 목화, 아욱, 근대, 뽕나무 등에 발생하는 해충으로서, 수박에서는 6월 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에 가장 밀도가 높으며, 이 시기에 재배되는 수박 억제작형에서 잎과 꽃 및 과실을 가해하여 큰 피해를 준다. 암컷성충은 잎 뒷면에 산란하며, 유충은 엽육을 갉아먹어 엽육만 남게 되고 유충이 자라면 잎을 말고 그 속에서 살면서 엽맥만 남기고 식해한다. 말린 잎 속에서 영성한 거미줄에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된다. 최근 하우스 재배 박과 채소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충에 대해 월동태와 월동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기별 충태 변화를 보면 10월 중순까지는 유충태가 대부분이나, 10월 하순경부터 번데기가 되며 그 전까지는 번데기가 수박 덩굴 또는 과실 주변에 있으나, 이 시기부터는 땅속으로 들어가 월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동 번데기가 서식하고 있는 토양의 습도를 보면 주로 pF2.4 범위의 적습토양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과습토양 보다는 건조 토양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수박을 통로 쪽에 재식하였을 경우 덩굴의 자라는 방향이 하우스 측창 쪽으로서 통로 쪽은 하위엽, 측창 쪽은 상위엽이 착생하게 되는데, 월동번데기의 비닐 하우스 내 분포 상태는 수박 상위엽 착생부분 이었고, 하우스방향이 남북일 때 중간부분 보다는 남쪽과 북쪽의 문쪽에 분포가 많았다. 월동번데기는 토양 5cm이하에 대부분 분포하였으며 성비는 52 : 48(암 : 수)이었다.